

돌봄 담론의 비판적 고찰

-권력과 죽음의 교차로에서 다시 보기-

강지희 (한신대학교 문예창작학과) / iskyyou@hanmail.net

1. 돌봄 담론의 배경과 문제 의식

- 2020년 _ 코로나19, 경제위기, 기후위기 경험
- ‘**돌봄 위기**’ 발발: 가사와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
- 이론의 변화) 가사 노동 임금투쟁 운동과 자본주의 거부 (실비아 페데리치, 『혁명의 영점』)
- 돌봄은 민주적 공동체를 위한 덕목이자 시민적 의무. ‘**함께 돌봄**’ (조안 트론토, 『돌봄 민주주의』)
- ‘**난잡한promiscuous 돌봄**’ (더 케어 컬렉티브, 『돌봄 선언』)
 - : 종種을 초월하는 ‘급진적 평등주의’의 ‘대안 돌봄 실천’
 - : ‘퀴어-페미니즘-반인종주의-생태사회주의의 정치적 비전’
- ‘**공동생성**’, ‘**트러블과 함께 하기**’ (해러웨이, 푸이그 드 라 벨라카사)

‘돌봄의 정치’는 너무 이상적으로 구축되어 정치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?

2. 2020년대 돌봄 담론의 유형들

1) 돌봄과 커먼즈(공동체)

- 돌봄의 시장화나 상품화를 넘어 삶의 모든 수준에서 중심에 놓이는 사회적 이상으로서 ‘보편적 돌봄(universal care)’(낸시 프레이저) 급진적 재구성
- 돌봄의 가치를 통해 ‘공공성’과 사회의 재발명이라는 요청 (황정아, 2021)

2) 돌봄과 섹슈얼리티 / 자기돌봄

- 인간의 취약성과 상호의존성을 넘어 돌봄에 복잡하게 연루된 권력에 주목
- ‘난잡한 돌봄’이 아닌 ‘차별적 돌봄’과 ‘자기 돌봄’의 필요(이연숙, 2022)
- 돌봄에 뒤섞인 우울감, 통제 욕구, 죄책감, 쾌락과 같은 정동을 가치화할 수 있는 가능성(인아영, 2023)

3) 돌봄과 기후위기 / 탈성장/ 비인간

- 팬데믹은 생명과 재생산의 위기이자, 돌봄의 위기
- 페미니스트 그린뉴딜 탐색: ‘돌봄과 생성의 원칙에 중점을 둔 대안경제’
- 탈성장은 경제성장 추구의 종식을 옹호, 돌봄과 커머닝이 탈성장 사회의 핵심 원칙, 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동력 (백영경, 2022, 2023)

돌봄 속 연대와 사랑을 넘어, 불평등과 권력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더 의제화할 것인가

3. 재생산에 역행하는 돌봄: 이치카와 사오 『헌치백』

- 고령의 중증 여성 장애인 ‘샤카’의 돌봄 제도 역이용
 - : 돌봄인들 관리하는 부유한 총괄자이자, 돌봄 서비스의 수혜자
 - : 성매매 여성 노동자 시점의 글쓰기 노동자이자, 성 서비스의 구매자
 - : 자신의 섹슈얼리티와 욕망 위해 위해 목숨까지 걸고 협상 시도 후 실패
- “평범한 여자 사람처럼 아이를 임신하고 중절해 보는 게 나의 꿈입니다.”(28)



- 안전과 보호를 지향하는 돌봄 서비스 집약체인 장애인 시설 그룹홈에서 발생하는 아이러니
- 이성애 재생산성의 특권화 탈취, 장애여성의 재생산권에 대한 시혜적 시선에 저항

매끄러운 돌봄 공동체로 이어지지 않는 비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

4. 상호의존하기 어려운 돌봄: 이주혜 「이소 중입니다」

- 번역가) 보신탕집에 팔려 가기 직전 구조된 노견 ‘상훈’의 당뇨와 비싼 병원비와 약값
- 개와 둘이 있을 때 개입하는 성희롱에 대한 분노와 상훈의 감정 노동에 대한 자책
- 시인) 이혼한 전남편의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리자 아파트 상속받는 조건으로 모시며 돌봄
- 소설가) 홀로 키운 딸의 성공적 취직 후 서로를 공고히 착취하는 모녀 관계
- 폐암 말기로 죽음에 가까운 철학자 친구를 보러가는 길, 이소 중인 어린 새 발견
- 이소 단계의 어린 새들을 선불리 구조하면 야생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

- 죽음 앞의 취약성을 인식하는 순간에도 철저히 개입되는 자본의 문제
- 이종들이 연결되는 ‘친족 공동체(테라폴리스)’가 아닌, 연결의 단절을 요청하는 비인간